

#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12화 : 앉으면 죽산이요, 일어서면 백산이라

새벽의 어스름도 동학군이 밝힌 햇불에는 맥을 못 추었다. 그들이 근거지로 삼은 백산 주변은 온 사방이 벌건 대낮인 양 서로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서 봉준은 고부봉기 전에 만들었던 사발통문(사발을 얹어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명단을 빙 둘러가며 적은 통문이며,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따른 거사 계획을 다시 한 번 되짚었다.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구먼.”

소중한 가보라도 되는 듯 봉준은 빗바랜 종이를 고이접어 품에 넣었다. 이곳에 오기까지 불과 4달 남짓이었지만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준의 처소에 모인 핵심 인사들 역시 잠 한숨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새벽별이 고개를 들도록 열띤 토론을 벌이는 중이었다. 봉준의 절치부심은 가늘게 떨리는 음성에 절절히 녹아있었다.

“오늘 열리는 백산 대회는 거사의 정점이 될 것이며. 즉, 관군도 행동을 개시할 거라, 이 말이제.”

동학농민군으로 거듭난 지금, 지도부의 총 대장은 봉준이 맡았으며, 총관령은 개남과 화중이 맡게 되었다. 딱히 감투라고 할 것도 없었다. 그저 동학농민군의 구심점 역할을 맡아 단합을 이끌어내고자 만든 자리였다. 대뜸 봉준이 물었다.

“네 생각은 어떠? 현세 네가 대답혀 봐.”

여럿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다. 현세는 탁자를 툭툭 올리던 손가락을 멈추고 나직이 대답했다

“봉 형 말씀이 맞습니다. 백산 대회가 끝나면 관군이 곧바로 움직일 겁니다. 고부때부터 이미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농민군을 와해시키는

걸 겁니다.”

개남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말이 좋아 와해지 전부 잡아다 죽치겠다는 소리 아니여?! 이런, 썩어 우라질 놈들. 몽땅 다 덤비라고 혀!”

이때만큼은 봉준도 개남을 말리지 않았다. 그 역시 개남의 괘괄한 성미 못지않게 울분이 치밀었기 때문이리라.

그저, 백성을 위하고자 나선 것뿐이었다. 이곳 전라지역에 국한 할 거 없이 탐관오리의 횡포에 짓밟힌 농민들의 피가 강을 이룰 지경이었으니까.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거두는 판국이니 그들의 삶은 죽는 것보다 더 팍팍하고 매순간이 고달팠다.

그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가슴을 쥐어뜯은 이가 바로 봉준이었다. 그는 다음 세대에는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마음을 다잡았다.

“나 전봉준이는 여기서 멈출 생각 없어. 나는 저쪽 한양까지 올라가서 보여주고 말 거구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농민군이 어떤 맘으로 나섰는지를 말이여!”

진심을 쏟아내는 봉준 앞에서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못 사내들의 속을 쥐고 흔드는 장중한 음성만이 처소 안을 맴돌 뿐이었다.

이윽고 봉준은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으며 마른 입술을 뻗었다.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관둬. 바짓가랑이 붙들 마음 없으니까.”

그 말을 들은 직후 가장먼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단연코 개남이었다.

“관두다니, 영준이 너 돌았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겨? 귀신이 되어서라도 보여줘야제!”

“포기하고 그럴 거였음 여짜까지 오지도 않았어!”

포기는커녕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햇불보다 더 붉게 타올랐다.

현세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농민군과 똑같은 백의(白衣)를 걸치고 곧게 뻗은 죽창을 곁에 세워두었다. 죽창으로 신식무기에 맞서겠다니 어불성설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죽창은 농민들의 곧은 의지와 직결되는 일종의 상징과도 같았다.

현세는 고저 없는 음성으로 차분히 말했다.

“봉 형, 백산 대회가 끝나자마자 조총 훈련을 맡겨 주세요. 화력 차이가 큰 만큼 효율성을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져온 책들도 전부 앞뒤로 엮어야 합니다. 여기서 꾸물거리다가는 전부 진압 당할 겁니다.”

현세는 잘난 전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탱크라도 한 대 있으면 원이 없을 것 같았다. 다른 사람 몸통이에 영혼은 잘도 꽂아 넣으면서 그런 것은 왜 안 되는지 의문이었다.

*“이준아, 너 사주가 왜 이러냐? 딱 외나무다리를 건널 팔자네. 남들처럼 편안한 꽃길, 비단 길은 다 피해 다니고 말이야. 몸조심 해야겠다, 너.”*

사주를 깨나 잘 보던 경찰특공대 전임 대장이 던진 말이 현세의 귓전을 울렸다. 모르긴 몰라도 이럴 팔자인 것을 어렴풋이 엿본 모양이지, 싶었다.

어째 돌팔이라 치부한 일이 우스울 만큼 가시밭길이 예상되었다. 사실 이 시대의 역사를 모르니 그럴 만도 했다.

‘어떻게 치트키가 하나도 없을 수 있냐. 그냥 맨땅도 아니고 돌부리에 헤딩하란 소리잖아, 빌어먹을.’

흡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자, 화중이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 현세 네 말대로 관군이 우리를 내버려 둘 리가 없겠지? 아마 깡그리 씨를 말리려고 할 거여. 각오는 이미 되어있어야.”

수많은 희생이 따를 거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이었다. 그렇지만 한 평생 살아오면서 같은 마음으로 봉기한 이들과 함께 산야에 묻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다.

현세는 사망플래그를 꽃으려는 분위기를 읽어내고 단숨에 말을 뉘아쳤다.

“화중이 형. 각오는 저쪽 공무원들이 해야 맞죠. 우린 그냥 조져버릴 준비나 하시죠?”

현세는 정말 이참에 전부 조져버릴 작정이었다. 빌어먹을 조총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견뎌볼 작정이었다. 죽을 때 죽

더라도 적진의 간에 기별이라도 보내고 싶었다.

화중은 현세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눈을 접었다.

“현세 네가 있어서 참말로 든든하구먼. 봉준 성님이 사람 하나는 참 잘 골라부렸지.”

“형님...”

연희의 것을 빼다 박은 화중의 눈매가 현세의 마음을 무겁게 간질이는 느낌이었다. 지켜야 할 게 또 하나 늘어난 기분이랄까.

봉준은 측벽에 세워둔 죽창을 세워 들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시방 동이 트는구먼. 준비허자.”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재 냄새와 지푸라기, 그리고 은은한 대나무 향이 한데 어우러졌다. 봉준은 이 순간을, 형제들과 나누는 모든 풍경을 눈과 마음속에 가득 담았다. 현세는 그런 봉준 옆에 나란히 섰다.

“봉 형은 저만 믿고 연설이나 열심히 하십쇼.”

발끝을 맴돌던 춘풍이 현세의 머리칼을 하릴없이 흔들어댔다. 준수한 외모에 농민 출신다운 구릿빛 피부가 유난히 돋보였다.

현세는 긴 머리칼을 한데 모아 하얀 명주 끈으로 질끈 묶었다. 정수리를 기점으로 삼아 멋들어지게 올려 묶은 모습은 사내라면 한 번쯤은 꿈꾸는 무협지의 주인공을 연상케 했다.

그 모습을 본 개남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현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댕기는 얻다가 삶아 먹은겨? 아따, 대가리 꼴 좀 봐야. 어디 소박맞고 죽은 귀신도 아니고 말이여.”

“아재, 이래봐도 내가 봉 형의 호위무사잖아요. 댕기는 영 본새가 안 난단 말이에요, 본새가.”

개남은 별 미친놈을 다 보겠다는 표정을 짓다가 이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현세를 보고 있자니, 무겁고 시린 얼음더미 위에 자라난 새순을 보는 듯했다.

‘이 놈이 살아갈 미래는 더 밝았으면 좋겠구먼.’

그래, 굳이 죽상을 할 필요는 없지. 개남은 뒤질 때 뒤지더라도 이 한 많은 세상, 마

음껏 웃어주며 가겠노라 다짐했다.

백산 땅을 밟은 농민군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백의에 죽창을 든 그들의 모습에서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노랑게 훑날리는 봄날의 송화가루도 이날만큼은 농민군의 시야를 어지럽히지 않았다.

무장현 장시에 모였던 그날처럼, 봉준은 저를 빙 둘러싼 농민군들을 향해 목소리를 드높였다.

“동지들이여!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 백산에 이르렀음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는 창생을 구하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한다!”

“와아아아아아!”

봉준이 외치는 격문은 귀에서 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졌다. 농민들의 죽창은 하늘을 찌를 듯 오르내렸으며, 그들의 함성은 이곳 백산뿐만 아니라 부안군 전체를 울리고도 남을 듯했다.

무장 집회와는 또 다른 전율에 현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어쩐지 그때보다 더 고조된, 본격적인 무장 투쟁을 알리는 봉화가 올랐음을 현세는 직감했다.

봉준의 격문 선인이 끝나갈 때 즈음, 농민들의 눈빛도 달라져있었다.

“..조금도 주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일어서라, 동학농민군! 쫓기하라, 동학농민군!”

지축을 박차고 오른다는 말은 정말로 존재했다. 현세는 그들과 같이 죽창을 들어 올리며 끓어오르는 정열을 한껏 보탰다.

이윽고 봉준의 수하들이 나눠주는 농민군 4대 행동강령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다. 현세역시 그것을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치지 마라. 충효를 다하고 세상을 구제해 백성을 편안히 하라. 왜놈을 몰아내자. 수도로 올라가 권세가와 귀족을 없앤다...」

현대식 한글에 익숙한 현세인지라, 대략적인 의미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저들이 어떤 뜻을 품었는지는 대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위정자들이 행해야 할 덕목을 미천한 가축 취급이나 받는 농민들이 펼치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현세는 손마디가 새하얗게 질리도록 4대 강령이 쓰인 종이를 움켜쥐었다. 눈앞에 모여든 농민군의 그림이 과히 장관이었다.

그들이 숙이면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그들이 몸을 일으킬 때면 백색으로 뒤덮인 물결이 첩첩산중이 되었다.

“동학농민군이여! 수도로 가자! 우리들의 뜻을 펼칠 때가 되었다!”

“가자! 수도로! 탐관오리를 몰아내자!”

“와아아아아아아!”

요동치는 백색 물결의 파동에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도 푸드덕, 소리를 내며 일제히 날아올랐다. 이제 남은 시간은 보름 남짓이었다. 그 안에 군무를 정비해서 전주성까지 치고 올라갈 일만 남은 터였다.

“동학농민군은 들으라.”

봉준의 음성은 들끓는 군중의 함성을 곧바로 잠재웠다.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만이 바스락 바스락, 기척을 낼 뿐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이제 더는 흠 파먹는 무지렁이가 아니여! 우리의 백의는 산천초목을 뒤덮을 것이며, 손에든 죽창은 저기 수도를 향할 거구먼!”

쿵! 쿵! 쿵! 쿵! 농민군들은 함성을 지르는 대신 죽창으로 바닥을 찌기 시작했다. 수천 명의 죽창이 자아내는 진동은 땅에서 솟아난 벼락을 연상시켰다.

현세는 용솟음치는 고양감을 전신으로 느끼며 죽창을 들어올렸다.

‘서울 구경, 한번 잘 해보자!’